

주가	환율	금리
+16.72 1,344.61 (코스피지수)	-3.00 961.00원 (원/달러)	4.75%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60.80 (+4.52)	
다우(28일)	11,352.01 (+67.96)	
나스닥(28일)	2,160.70 (+20.41)	
닛케이	15,890.56 (+127.97)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82엔 (+0.33)	
유로-달러 환율	1.2821달러 (+0.46)	
3년만기 회사채	5.08% (보합)	
플러그	4.48% (보합)	

형광등 10년뒤 사라진다

반도체광원 등 새 광원 개발 본격 추진

반도체광원(LED), 유기전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새로운 광원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10년 후인 2015년께에는 형광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9일 형광등을 대체할 새로운 광원을 개발하고 조명산업을 차세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명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조명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우리나라를 2015년 세계 7대 조명산업 기술강국에 진입하게 만들고 20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0%, 수출 40억달러, 고용 10만명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우리나라 조명산업의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2%이고 수출은 4억7천만달러, 고용 규모는 2만7천명이었다.

산자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신광원 핵심 원천기술개발, 지능형 조명제어 시스템 등 조광기 기술개발을 10종류 이상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조광기 기술개발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 최초로 안산의 산업기술대학교 나노공공학과에 조명공학전공을 신설,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차세대 신광원분야의 전문인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남뉴스**

주택담보대출 금리 0.31%p 급등

4년 5개월만에 최대...은행 잇속차리기 비난

플러그 인상 및 은행간 경쟁 약화 등으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년5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예금금리는 하락해 6월 플러그 인상 이후 은행들의 알미운 잇속 차리기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기준 기준)는 전월보다 0.31%포인트 급등한 연 5.79%를 기록했다.

주택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의 상승세 속에서도 은행들의 대출확대 경쟁으로 인해 올해 1월 연 5.64%에서 2월 5.58%, 3월 5.46%, 4월 5.42%, 5월 5.41% 등으로 계속 하락했지만 6월 5.48%로 상승 전환한 이후 급등세를 나타냈다.

주택대출금리가 한달간 0.31%포인트나 오른 것은 2002년 2월 연 6.00%에서 6.49%로 0.49%포인트 급등한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에증서(CD) 금리가 크게 오른 데다 감독당국의 규제 등으로 은행간 경쟁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주택대출금리 급등의 여파로 지난해 가계대출금리는 연 5.95%로 전월대비 0.23%포인트 올랐다. **연남뉴스**

아시아나 '기내 셰프 서비스'

요리사, 1등석 승객대상 즉석 일식요리

비행기 기내식 서비스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2일부터 인천-로스앤젤레스 구간 1등석 승객을 대상으로 국내 항공사 최초로 '기내 셰프(chef)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항공기에 요리사가 직접 탑승해 즉석에서 요리를 만들어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만들어진 기내식을 데워서 승객들에게 제공해왔지만, 아예 요리사가 비행중인 항공기 안에서 직접 요리한다.

아시아나의 1호 요리사는 일본 도쿄지역 요리사 협회장을 역임한 45년 경력의 노리후미 후지오카씨로, 승객들을 위해 참치와 도미 등 각종 해산물을 이용한 일식 초밥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 셰프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되고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 승객들을 보다 편안히 모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아파트값 광주 2% ↑ 전남 0.6% ↑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광주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6대 광역시 평균을 웃돈 반면 전남지역은 전국 지방 평균을 밑도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반기 광주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2.02%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57%보다 0.45%p 높았다.

이는 6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6.50%)과 인천(3.26%) 등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몰려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부산(-0.22%), 대전(-0.04%) 등과 대조를 이뤘다.

지자체별로는 남구가 6.77%로 가장

올 상반기 소폭 올라... 부산·대전지역과 대조

광주 남구 6.8% ↑...신규분양 단지 상승 이끌어

높았으며, 광산구(3.76%), 서구(0.59%), 북구(0.45%), 동구(0.1%)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또 전세가 상승률이 1.55%로 대전(-1.01), 부산(-0.3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2~3년새 광주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데다 고가의 신규분양 단지가 기존 아파트값을 견인하면서 전반적인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실제 올해 광주 지역의 평당 분양가는 588만원으로 지난해 말 563만원보다 25만원(4.4%)가량 상승했다.

특히 남구의 경우 휴가철 비수기에도 매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단지별로는 남구 봉선동 라인하이츠 31평형과 삼익1차 47평형이 최근 한달새 각각 600만원, 750만원 올랐다.

반면 전남은 올해 아파트값이 0.

63% 상승하는데 그쳐 지방 평균 1.88%는 물론 경기(12.89%), 충북(4.40%), 전북(3.66%), 경남(1.27%), 강원(1.17%) 등을 크게 밑돌았다. 전세가 상승률도 1.27%에 그쳐 전북(4.38%), 경기(4.27%), 충북(3.21%), 경북(2.61%), 경남(2.14%), 강원(1.48%) 등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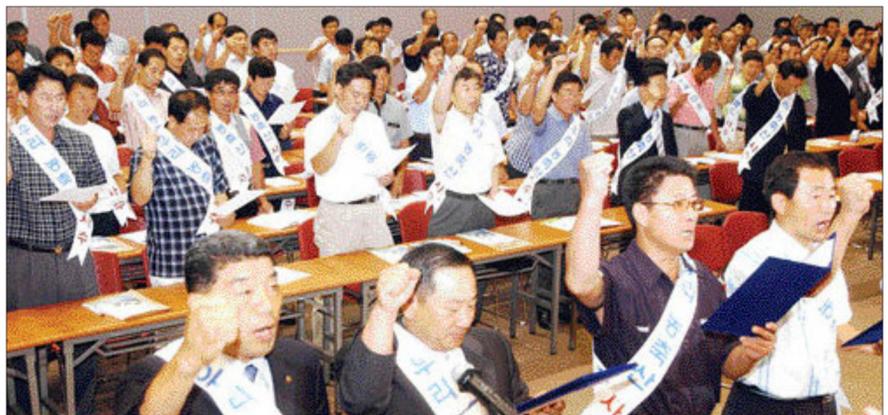
전남은 또 일부 노후단지의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순천시 조례동 명지장이 20평형과 22평형의 매매가가 각각 200만원, 250만원 하락하는 등 시·군별로 하향안정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상반기 광주지역 아파트시장은 거래가 크게 감소

지역	매매	전세
전국	10.08	4.00
서울	13.90	5.71
수도권	9.14	4.28
광역시	1.57	1.98
지방	1.88	2.40
부산	-0.22	-0.31
대구	1.59	2.93
인천	3.26	4.64
광주	2.02	1.55
전남	0.63	1.27
울산	6.50	6.72
경기	12.89	4.27
강원	1.17	1.48
경남	1.27	2.14
전북	3.66	4.38
충북	4.40	3.21

한 가운데서도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집값이 소폭 상승했다"며 "특히 신규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여서 단지 및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2006년 축산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축산인 결의대회가 300여명의 축산인들이 모인 가운데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축산인들은 한미FTA 협상 중단, 축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지내 축사규제 완화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아차 파업 1조 2,700억 손실

기아차 6,500억·협력사 6,200억 '사상최대'

기아자동차가 지난달 18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노조의 일단협 관련 부분파업으로 29일 현재 사상 최대인 총 4만3천대의 생산차질과 6천500억원의 매출손실을 기록하게 됐다.

이날 기아차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매출손실 규모는 1997년의 역대 최대 파업손실액 5천997억원을 넘어섰고, 2004년 일단협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손실액(2천862억원)의 두배에 달하게 됐다. 또 이 같은 피해규모는 기아차가 연초 설정한 올해 매출목표 19조9천720억원의 3.3%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은 기아차 뿐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손실로도 이어지고 있다. 기아차 협력업체에 따르면 400여개의 1차 협력업체들과 6천여개의 2·3차 협력업체는 이날 현재 기아차 노조의 파업으로 총 6천2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이번 파업으로 기아차의 파업 손실액과 협력업체의 손실액은 총 1조2천700억원에 달하게 됐으며, 이번주에도 주야 각 4~6시간씩 부분파업이 예고돼 있어 손실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사측은 지난 28일 본교섭에서 지난 21일 제시했던 인상안(기본급 7만3천200원 인상)보다 다소 높은 기본급 7

만5천원(기본급 대비 5.5%)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노조는 기본급 기본급 10만 6천221원(기본급 대비 7.8%)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대리점협의회는 29일 기

아차 파업과 관련, "불특정 다수인 국민을 불모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현행의 파업양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프라임, 동아건설 우선협상대상자

건설업 면허 회복 미지수 졸속 입찰 비판 여론도

동아건설 인수자 선정을 위한 본입찰에서 프라임산업 컨소시엄이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동아건설 매각주간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9일 전날 마감된 6개 업체에 입찰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프라임산업-트라이먼트 컨소시엄이 최고득점 7천000원에 달하게 됐으며, 이번주에도 주야 각 4~6시간씩 부분파업이 예고돼 있어 손실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사측은 지난 28일 본교섭에서 지난 21일 제시했던 인상안(기본급 7만3천200원 인상)보다 다소 높은 기본급 7

천억원대 후반과 6천500억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동아건설의 건설업면허 회복 여부가 향후 인수절차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동아건설은 파산상태로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가 실효력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에선 최근 산자부의 유권해석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회복이 어려워진데 이어 일반건설업 면허까지 회복되지 않는다면 매각 협상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졸속 입찰이라는 비판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협상자는 건설업 면허가 회복되지 않아 옛 공사실적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 매각협상을 무효화할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투자유치만이 일자리 창출"

商議 광주·전남 고용포럼 체계적 고용대책 시급

광주시와 전남도의 고용정책이 겹칠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1회 광주·전남 고용포럼에 발제자로 참여한 홍성우 전남대학교수는 "광주·전남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고용정책 관련예산에 대한 중앙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인식전환과 관련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이 지역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화의 촉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고용의 질 향상과 함께 저학력자·중고연령층·청년

층 등에 대한 특별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신 한려대 교수는 '광주지역 인력수급 분석 및 적극적 지역직업능력 개발방안'이라는 발제에서 "광주지역 노동인력의 직업능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면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 안심년제, 유능강사 위촉지원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실업자들에게 취업을 돕기 위해 각종 직업정보 제공,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복지 분야와 연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이한재 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이양정 한국노사관계연구원 원장, 장하경 광주대 교수, 김영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차장이 지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체 및 경제유관기관 고용·인적자원 관련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상의 주최 제1회 광주·전남 고용포럼에서 발제자와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바늘구멍' 대졸 취업 더 좁아진다

주요 기업 하반기 채용 작년보다 축소 계획

인크루트 상장기업 조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요 상장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미루거나 채용 인원을 작년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주요 상장기업 5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채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중 49.7%만 하반기에 대졸 신입·경력사원을 뽑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589개 상장사 대상)에서 61.5%의 기업이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11.8%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반면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거나(30.1%) 채용계획이 없다(20.2%)고 밝힌 기업들은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4.7%포인트, 7.1%포인트 증가해 내수 부

진에 대한 우려로 각 기업들은 사원 채용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들도 이들 기업이 지난해 하반기에 채용한 인원(2만953명)보다 7.8%나 준 1만9천309명을 총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돼 하반기에는 대졸 구직자들의 취업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물류운송(408명), 자동차(1천352명), 기계·철강·조선·중공업(1천608명), 식음료(1천10명), 금융(2천601명) 등은 주5일 근무제,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채용 인원이 작년 대비 2.2~19.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석유화학(382명), 제약(760명), 전기전자(6천161명) 등은 업황 부진 등의 이유로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이 늘면서 채용규모가 작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남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빛시스템	대안회계 정규직 광주 T/M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9	062-376-1118
☎미보	자재구매 경력자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8/30	062-946-7000
☎잡플러스	금융데이터 아바라비트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30	062-515-2700
☎에이아이에스그룹	[신세계백화점] 판매 및 매장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2년	1800~2000	08/31	02-461-1505
☎스카우트텔프	2교대 계약직 방청고 조립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8/31	062-514-6464
☎파워윈	시스템엔지니어 채용 공고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8/31	062-710-0131
현천에넥스	영업 및 영업관리, DP팀장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31	062-263-9300
신인철재☎	경리, 회계, 사무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8/31	062-942-6050
남영건설☎	본사내근직 건축8TL 담당 사원모집	대졸/경력2년	1800~2000	09/02	062-351-3700
동회사	2006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2	062-514-2451
☎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03	062-601-7203
☎기영미디스	분야별 정규직 사원(영업/대리점/텔레마케터/생산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4	062-952-944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